

페미니즘 소설 번역에 나타난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82년생 김지영』의 중역본(中譯本)을 중심으로

이 지 영
(한국외대)

1. 서론

주지하다시피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사회의 여성차별 및 여성 혐오라는 어두운 현실을 남성 정신과 의사의 상담 기록 형식을 통해 30대 여성의 생애사로 서술한 소설이다. 서적, 논문, 신문잡지, 통계자료 등 각종 공적 자료들을 제시하여 여성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페미니즘 소설을 여성 혐오 기반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억압에 착목하고,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소설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김양선 2017; 엄혜진 2021; 오길영 2018; 이선옥 2018), 이 소설은 페미니즘 소설의 계보에 놓인다. 또한 이 소설은 여성 혐오의 폭력성을 연대기 순으로 사실감 있게 기록한, 르포르타주(reportage)¹⁾ 기법의 소설이기도 하다. 학술담론에서 말하는 광의의 여성 혐오(misogyny)는 일반적으로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르포르타주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서 현지 보고나 보고 기사를 이르는 말로 르포라고 줄여서 이르기도 한다.

로 여기는, 여성 멸시적 인식이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차별 사회 구조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원천으로 정의된다(김수진 2016; 김현과 손병우 2020; 이나영 2016).

소설은 주인공 김지영을 한국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여성으로 묘사하고, 김지영의 인생이 성차별적 현실에 의해 필연적으로 짓눌려 그의 마음과 정신이 좌절하고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데 공을 들인다. 김지영을 무력하게 만든, 생산과 재생산 및 고용과 노동의 장에서의 성차별 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혐오가 일반적인 김지영의 세계에서 남아선호, 여아 낙태, 교육 차별, 고용 차별, 임금 차별, 승진 차별, 고용 불안, 성희롱, 성폭력, 독박육아, 가사와 돌봄의 젠더 불평등, 불법 촬영 성범죄, 공공연한 여성 비하 발화 등을 연대기 순으로 서술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의 현실을 ‘팩트’로 선명하게 논증한, 이 페미니즘 소설은 2010년대 후반 국내에서 페미니즘을 뜨거운 사회적 화두로 쏘아 올렸다. 동시에 할리우드 발 ‘미투’ 운동 및 온라인 공간과 접속된 ‘제4의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 등 세계적인 페미니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번역되어 ‘페미니즘 자장’ 안에서 대중적인 텍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²⁾

그런데 이 같은 ‘페미니즘 소설’로서의 글로벌한 시대적 수용과는 대조적으로, 동시대 중국에서 2019년 9월 출간된 『82년생 김지영』의 중역본(中譯本)에서는 원작의 페미니즘 주제 의식이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원작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삭제, 추가 및 곁텍스트(paratext)에서의 해설 재배치 방식을 통해 원작에 담긴 여성 혐오 및 여성차별 고발의 메시지가 대폭 약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에 관련된 대부분의 중국 언론 기사 역시 깊이 있는 비평 대신 작품 소개나 사실 확인 및

2) 2019년 12월 기준,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에서 약 130만 부, 일본에서 14만 5000부, 중국에서 18만 부가 팔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베트남, 태국 등 17개국에서는 출간되었거나 출간이 확정되었다. 동기 기준, 중국에서는 신간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일본에서는 최단기간 베스트셀러에 오른 한국 소설로 기록되었다. 2020년, 미국에서는 ‘페미니즘 소설’로서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으로 선정되었다(김지영 2022; 임지영 2019).

심리적 공감 차원의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소설의 주체의식이 모호해진 번역의 맥락에 주목하여 이를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이란 분석틀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이란 메타 내러티브 수용 측면에서 목표문화권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보고 수용 환경의 특수성이 번역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82년생 김지영』의 중역본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번역과 갈등 및 충돌의 관점에서 내러티브는 세상에 대해 구축된 개인적이고 공적인 이야기들을 말한다. 이 이야기들 속에 내포된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을 이끈다. 유포하는 주체에 따라 내러티브 유형을 분류하는 내러티브 이론에서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은 거대 담론 특성을 지닌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프레이밍은 내러티브를 바라보는 ‘해석적’ 작업으로서 내러티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담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상호 경쟁 관계에 놓인 내러티브들 간의 ‘투쟁’을 전제하는 내러티브 이론은 개인적, 집단적 저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 착목하게 하는 이점을 갖는다.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슈에 균등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치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번역 선택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특히, 시대의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 내러티브의 구축과 수용은 목표문화권의 정치사회적 맥락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메타 내러티브는 종종 번역을 통해 상이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리프레이밍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번역 텍스트와 그것의 결텍스트에서 이루어진다(Baker 2007: 151-155).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이 ‘리부트’되어 맹렬하게 전개되었던 한국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페미니즘은 상업화와 시장화의 공세 속에서 여성을 둘러싼 악화된 현실과 강화된 정부의 압박, 통제, 검열, 감시로 인해 ‘저속 주행’을 지속한 것처럼 보인다(박자영 2020: 6). 중국 당국은 그동안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기초하여 페미니즘이란 용어 자체를 회피하면서 페미니스트들과 적대 관계를 맺어왔으며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많은 ‘반(反)페미니즘’ 내러티브를 생성하여 왔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결혼과 육아 및 노인 돌봄에 한정하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안정적인 국가의 토대라는 관념을 국가적으로 선전하여 왔다. 시진핑 시대에 부활한, 이러한 전

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국가 건설과 무관하게 여성을 한 개인으로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과 상충된다(Hong Pincher 2020: 237-243).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중국에서의 페미니즘 번역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설하에 『82년생 김지영』의 페미니즘이 그것의 중역본에서 어떻게 리프레이밍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번역 양상을 기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페미니즘 및 여성 혐오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이론 등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두 번째로 페미니즘 수용 맥락과 관련하여 중국 고유의 정치적 맥락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를 비교 분석한 후,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대폭 약화되어 리프레이밍된 양상을 번역 텍스트의 생략, 삭제, 추가 및 결텍스트에서의 해설 재배치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페미니즘이 수용되기 어려운 중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된 번역 소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중국이라는 목표문화권에서 페미니즘 관점의 고발과 연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었음을 기록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 및 권력집단에 순응하는 번역의 기능 역시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페미니즘 내러티브

번역과 갈등 및 충돌의 관점에서 내러티브는 세상에 대한 개인적이고 공적인 이야기를 뜻한다.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구축하여 사건들을 이해하고 내러티브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사건들로 구성된 내러티브는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인과적 플롯(causal emplotment), 시간성(temporality), 관계성(relationality)이란 내러티브 특성을 지닌다. 선택적 전유는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되는 사건들이나 행위자가 부분적으로 선택됨을 가리키고, 인과적 플롯은 사건의 해석에 관련된 내러티브

특성으로서 결정적이라고 판단된 사건들의 관계를 통해 사건을 설명한다. 시간성은 내러티브를 특정 시공간적 맥락에 위치시키기 위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 관계, 행위자 등의 요소들이 특정 시공간적 맥락에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는 것을 나타낸다. 관계성은 특정 내러티브를 완성하기 위해 고립된 사건들이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내러티브로 구현되지 않는, 고립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Baker 2006: 50-73).

내러티브는 유포하는 주체에 따라 네 가지 내러티브로 분류된다. 존재론적 내러티브(ontological narratives)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구축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고 이해하게 해준다. 공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s)는 언론, 정부,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나 제도기관에 의해 구축된 이야기이다.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들은 특정 단체에 의해 조성된 공적 내러티브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념적 내러티브(conceptual narrative)는 연구자들이 구축한 연구 결과물로서의 내러티브로서 학문 연구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는 살아남고 불리한 변이는 사라진다는, 다윈(Charles Darwin)의 자연 선택 이론(theory of natural selection)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s)는 시대의 거대 담론으로서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운동에 헌신하는 행동가들을 양산해왔다. 대중적으로 유포된 이야기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시대의 물리적 공간에서 필연성과 불가피성이란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다양한 견해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진보, 산업화, 냉전, 테러와의 전쟁 등의 담론들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진보라는 메타 내러티브는 사회 발전에 대한 보편적 담론으로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계몽시대의 위험한 유물로서 환경 파괴 및 핵 개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ibid: 44-45).

페미니즘은 수 세기에 걸쳐 오늘날까지 전개되고 있는, 성차별적 구조에 저항하고 이를 변혁하고자 하는 인식론이자 이론이며 운동이므로(이나영 2016: 177) 메타 내러티브로 간주될 수 있다. 페미니즘은 그 역사적 형태와 정치적, 이론적 내용이 다면적이고 다양하여 모두가 동의할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

만 최소한의 정의를 언급하자면 다음의 두 가지 근본적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현재 여성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예속 상태에 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겪고 체계적 불이익을 받는다. 둘째, 여성의 예속은 정치사회적 연대와 행동을 통해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만 한다(Cameren 2022: 15-17)

즉,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여성 억압이 최소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 지배의 사회적 구조에 예속된 상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적 종속에서 벗어나 인간의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혁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여성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Ramazanoglu 1997: 21-24).

정치사회적 연대와 행동을 통해 성차별 구조에 의한 예속 상태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 혐오는 성차별 구조의 남성지배 사회를 작동시키는, 여성 억압의 중요한 인식의 기초가 된다. 여성 혐오는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증오하는 문화적 인식으로서, 이는 혐오, 증오, 멸시, 적대, 사소화, 폭력, 살인, 성적 대상화 등 수많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수진 2016: 175). 일본 사회의 보편적 여성 혐오 현상을 진단하면서 여성 혐오 용어의 영향력을 대폭 확장시킨,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2012: 232-246)는 그의 저서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에서 여성 혐오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타자화로 정의한 바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여성들의 인생에 등장하는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를 꿰뚫히게 묘사한다. 제도적이고 명시적인 성차별은 줄어들었지만 여성 혐오의 인식과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어떻게 아직도 ‘그녀들’의 삶을 예속하고 억압하는지 보여준다. ‘맘충’이란 전형적인 여성 비하 표현은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가시화했다. 남녀 임금 격차, 유리천장 지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률 등의 객관적 수치는 성차별적 현실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비가시적 성차별을 고발하였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포기하고 독박육아와 명절노동을 강요받는 ‘지영 씨’의 이야기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인식 속에서 ‘여성’이라는 조건이 여성 자신을 속박하는 사회 구조의 부당

함을 폭로했다고 볼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조용한 고백과 객관적 자료로 불공정한 여성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한 페미니즘 소설이다. 더불어 김지영 씨의 아픔과 고통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여 김지영 씨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통’ 페미니즘 소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김지영의 주변 여성들은 그들의 현실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면서 서로를 돕는다. 또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가고자 자매애적 연대를 실천한다. 김지영 씨의 엄마는 김지영 씨와 그의 언니의 대학 진학을 후원한다. 김지영 씨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는 정류장 벤치까지 따라온 치한에 두려워하고 있는 김지영 씨를 도와준다. 김지영 씨가 직장에서 만난 김은실 팀장은 화장실 불법 촬영 피해자들과 연대해 여성 단체의 자문을 얻어가며 함께 대응한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모두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여성 혐오와 성차별 현실을 벗어날 대안이 여성들의 공감과 연대에서 싹틀 수 있다는 페미니즘의 기본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2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세상에 대한 개인적이고 공적인 이야기인 내러티브는 프레이밍이라는 담화 행위를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다. 프레이밍은 특정 관점을 취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서 일종의 예측 구조를 가리킨다. 프레이밍은 사건의 해석을 유도하는 이 예측 구조를 세우는 작업으로서 적극적인 의미화(signification) 과정이다. 여러 사건들이 선택적 전유, 인과적 플롯 등의 내러티브 특성을 갖추고 내러티브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담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 프레이밍이 그러한 담론화를 수행한다. 특정 수신인을 대상으로 사건과 이슈로 구성된 내러티브를 프레이밍하는 담론화 작업은 내러티브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수정하는 방법이다(Baker 2006: 106-156).

번역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사회적 현실 구축에 참여하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 리프레이밍 방식으로 원작 텍스트의 내러티브를 수정해온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역학관계,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독자의 기대 지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김순미 2013; 이해승 2019; Boukhaffa 2018;

Xiao and Zhang 2015). 김순미(2013)는 내러티브 이론의 틀 안에서 ‘아랍의 봄’을 보도한 CNN 뉴스의 한국어 번역 기사를 분석하여 CNN의 보도 성향 및 한국과 미국의 아랍과의 관계가 한국어 기사의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혜승(2019)은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이익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해관심이 원작의 주제의식을 완전히 지우고 번역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관철되는지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부카파(Boukhaffa 2018)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강하게 반영된 원작의 아랍어 번역서를 분석하여 아랍어 역사에서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전략에 의해 오리엔탈리즘이 약화되었음을 목표문화권의 문화적 맥락 조사와 함께 논증하였다. 샤오와 정(Xiao and Zheng 2015)은 모언(莫言)의 소설 『풍유비둔(豐乳肥臀)』의 종적 퇴화라는 내러티브가 이 소설의 영역본에서 가부장적 전통 전복과 지배적 정치 담론 반박으로 리프레이밍되었음을 서구의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함께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은 원천 텍스트의 내러티브 특성이 목표문화권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번역을 통해 재배치되고 원문의 내러티브가 새롭게 의미화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이라 볼 수 있다.

원문 텍스트의 내러티브를 의도된 방향으로 전유하기 위한 리프레이밍 장치는 프레임 모호성(frame ambiguity), 시공간적 프레임(temporal and spatial framing),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삭제, 추가를 통한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of textual material), 레이블링(framing by labelling), 참여자 재배치(repositioning of participants)의 결텍스트 해설 재배치(repositioning in paratextual commentary)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로 다룬 선택적 전유는 번역 텍스트에 대한 생략, 삭제, 추가를 통해서 원문 텍스트에 내재된 내러티브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번역 과정에서 원천 텍스트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없던 표현을 추가하는 것 등의 방식이다. 결텍스트 해설 재배치는 번역서 커버의 문구나 작품 소개, 역사서문, 각주, 역주 등 결텍스트 해설 내용의 재구성을 통해 원천 텍스트의 내러티브를 보다 부각하거나 약화시킨다. 결텍스트 해설 재배치는 목표문화권의 원천 텍스트에 대한 수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타자’를 의도된 방식으로 전유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Baker 2006: 107-135).

번역학에서도 원작의 페미니즘 요소가 번역을 통해 축소, 강화, 삭제되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마승혜 2020; 박미정 2022; 이범 2022; 이상빈 2016; 이상빈 2021; 이상빈, 이선우 2018). 다만 본고는 번역이라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주요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Tyulenev 2014: 1) 내러티브 이론의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분석틀을 적용해 목표문화권의 정치적 맥락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페미니즘 내러티브의 축소와 함께 고찰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4장에서는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삭제, 추가를 통한 선택적 전유 및 결 텍스트 해설 재배치라는 두 가지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방식을 통해 원작의 페미니즘 메타 내러티브가 중국어 번역본에서 대폭 약화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중국의 페미니즘 수용 맥락

3.1 중국의 ‘이데올로기 통제’와 페미니즘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만이 이데올로기를 관리한다(黨管意識形態)’는 원칙 아래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통치 이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개혁개방 노선)’,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으로 이루어진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은 사회주의 이념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조영남 2022: 711). 2012년 말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시대’에는 중국식 신권위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애국주의 통치 이념화가 강화되었다. 중국식 신권위주의는 중국 같은 비서방 후발 국가들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철권통치로 사회를 강하게 통제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권위주의 단계를 거쳐야만 점진적으로 정치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공산당의 이념을 강화해 지도자와 당의 중앙에 권력을 고도로 집중시키고 민주주의, 삼권분립 등 서구의 보편 가치 같은 민감한 용어는 아예 거론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강화해 사회의 다원성을 억제하고 공산당 통치 질서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박민희 2021: 48-53).

애국주의 이념화는 공산당이 쇠퇴한 사회주의 이념을 보완하려고 국민을

동원한 ‘관방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에서 비롯된 것으로, 젊은 세대의 시선과 불만을 국내 문제에서 국제 문제로 돌리고 미국 등 서방 강대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그것의 최종 목표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정당화하고 영속하려는 것이다. 애국주의는 중국 사회에 ‘피해의식’과 ‘포위심리’를 조장하여 공산당의 영도 하에 전 인민이 똘똘 뭉쳐 국력을 증강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까지 100여 년 동안 중국 민족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고통받아왔으며,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중국이 소련처럼 붕괴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는 애국주의 이념은 불안 심리를 조장하여 공산당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정치 전략이다(조영남 2022: 455-459).

문제는 페미니즘 수용 맥락과 관련하여 애국주의 통치 이념이 가부장적 권위주의(patriarchal authoritarianism)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사회의 애국주의 열풍과 함께 중국의 전통 가치와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면서 유교 사상의 통치 이념화는 가부장적 가족을 강하고 안정된 국가의 토대로 놓았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국가를 남성이 지배하는 대규모 가족으로 간주하며 그 가족은 가부장적인 가장의 강하고 남성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한다. 반면 여성의 역할은 유교적 담론의 전통적인 아내와 어머니의 ‘미덕’이 지켜지기 위해 어린 세대의 교육과 노인 돌봄에 한정된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가족의 화합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유교적 담론을 이용해 여성의 욕망과 역할을 제약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족 여성들을 인구 재생산의 생식 도구로 간주하여 여성들이 남성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아 미래의 노동력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오늘날 중국 경제는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서 오는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 둔화에 놓여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사회 안정의 토대라는 관념을 국가적으로 선전하면서 중국 여성들이 출산자 및 양육자와 사회 안정망의 지지대로 남아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Hong Fincher

2020: 233-270).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이러한 성차별적 요소는 여성의 예측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페미니즘과 정면충돌한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여성 혐오적 성역할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아야 하고 또 무보수의 가사노동을 떠맡으며 아이 양육과 노인 돌봄에 힘써야 한다. 아이 양육과 노인 돌봄의 공적인 부담과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여성의 희생과 착취에 의존하여 가족의 문제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페미니즘은 누군가나 무언가에 예측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전제하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 역시 애국주의와 집단주의에 기반한 성역할에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과 육아로 여성들을 몰아넣으려는 국가의 예측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애국주의와 국가건설과는 무관하게 여성들이 한 개인으로서 해방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여성들에게 그들 삶에 대한 통제권을 쟁취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전통적인 성별 역할을 국가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중국 내에서 페미니즘 확산을 불편해하며 성차별 및 성폭력 현실을 고발하고 성평등 사회를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2017년 5월, 중화전국여성연합회 부위원장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적대적인 서구 세력이 서구적인 페미니즘을 이용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생각이 성평등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Hong Fincher 2020: 238). 같은 해 중국 광저우(廣州)에서는 영 페미니스트 그룹 F에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한 성추행 반대 광고가 관련 부서의 게재 거부로 1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박자영 2020: 104). 2018년에는 중국 전역에 ‘미투운동’이 확산되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고발들이 이어졌지만 관련 사건들의 대부분의 글들이 검열로 삭제되었고 관영 언론들도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중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성추행을 고발하는 글이나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는 글은 검열 대상이며 페미니스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되곤 한다(박민희 2021: 206-215).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정치적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보다 강해지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탄압과 감시도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이 정부, 기업, 대학 등의 고위층 인사, 간부들의 부패와 성추

문이 광범위하게 폭로될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중국의 남성 지도자들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여성의 예측이 공산당의 생존에 핵심적이라는 것에 합의했고,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열렬한 참여가 정치적 비판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Basu 2017; Hong Fincher 2020; Wang 2018).

가부장적 가치를 강조하고 페미니즘을 억압하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은 출판서적이라는 미디어에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에서의 검열 대상 미디어는 서적, 잡지, 신문, 영화, TV, 라디오, 인터넷에 이르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이 중 서적이나 잡지 등 출판물은 반드시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관할 아래 놓인다(梶谷懷 [가이], 高口康太 [고타] 2021: 118). 특히 2018년 3월부터는 중앙선전부가 예전의 국가신문출판방송총서 대신 출판 정책의 주무부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출판 정책들의 방향 정립에 있어 시진핑 시대의 정책과 사상의 홍보가 훨씬 강화되었다. 중앙선전부는 중국의 출판 검열과 중국 당국의 사상 및 업적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면서 중국의 사회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서적들은 출간과 배포를 금지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들은 검열을 통해 보다 강도 높게 삭제하고 있다(조정원 2022: 115-134).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을 겨냥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페미니즘 수용을 둘러싼 역사적 현실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억압하고 회피하는 페미니즘을 전면적으로 표방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중국 당국의 검열의 칼날을 피해 그대로 출간되기란 어려운 것임을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82년생 김지영』의 주제의식이라 할 수 있는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그것의 중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굴절’되어 리프레이밍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페미니즘이란 메타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 사회에서 번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유해보고자 한다.

4. 페미니즘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의 사례 분석 및 논의

4장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의 원천 텍스트와 그것의 중국어본 번역 텍스트 및 결텍스트 비교를 통해 여러 변형의 사례들을 기술하고 이를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이란 분석틀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중역본 번역 텍스트와 결텍스트에서 원작의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어떻게 리프레이밍되고 어떠한 내러티브가 새로 구축되었는지 살펴본다.

4.1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삭제, 추가를 통한 선택적 전유

원천 텍스트와 중국어 번역 텍스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장치 가운데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삭제, 추가를 통한 선택적 전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7월, 한국에서 출판된 『82년생 김지영』의 27쇄 기준, 원천 텍스트의 34, 35, 54, 55, 64, 67, 72, 93, 95, 114, 124, 131, 156, 165 페이지의 개별 단어, 개별 문장, 절, 문단 차원에서 원문의 일부가 번역본에서 생략, 삭제, 추가됨으로써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약화되고 있었다. 원문에 대한 생략은 전체 문장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위협적이고 억압적이며 차별적인 젠더 에피소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성차별과 여성 혐오 현실의 사회적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원문에 있던 문장이나 문단을 통째로 삭제하는 선택적 전유는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상황에서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억울함, 실망, 분노, 공포 등을 느끼는 김지영의 감정 표현 부분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원문에 없던 부분을 추가하는 선택적 전유는 여성차별과 여성 혐오의 사회적 구조를 비가시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주요 예시들이다.

예시 1) 복장 규정이 좀 빡빡했는데, 유난히 여학생들에게 엄격했다. 김은영씨의 말로는 남녀공학이 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한다
 老師對服裝的規定很嚴格，對學生也十分嚴勵。根據金恩英的說法，學校變成男女合校以後情況更為嚴重
 (선생님은 복장 규정에 있어 엄격했고 학생들에게도 매우 엄격하게 대했

다. 김은영씨가 따르면 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면서 더 심해졌다고 했다)

예시 2)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 옷차림이나 근무 태도를 핑계로, 알바비를 담보로 접근해오는 업주들, 돈을 내면서 상품과 함께 어린 여자를 희롱할 권리도 샀다고 착각하는 손님들이 부지기수였다
那些身處打工環境里的女同學，遇到過太多會借故接近她們的老板，不是以穿着或工作態度需要改進為由，就是以打工薪水作為要挾，甚致有客人自以為付了錢除了能買到商品，也能順便買到性騷擾年輕女孩的權利
(아르바이트하는 여자 동기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그들에게 접근해오는 업주들을 무척 많이 만났다. 업주들은 옷차림이나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핑계로 접근해오거나 알바비를 담보로 위협했다. 심지어 돈을 내고 물건을 샀으면 젊은 여성을 성희롱할 수 있는 권리도 샀다고 착각하는 손님도 있었다)

예시 3) 된장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무슨 너(女)라는 말들이 한창 유행하던 즈음이었다
當時正處於罔絡用語盛行的年代，剛好出現‘大醬女’這樣的稱號，還有各種貶低女性的新造詞
(인터넷 용어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된장녀라는 말이 생겨났고 여성을 비하하는 신조어도 있었다)

예시 4)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조사국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해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로 꼽혔다
另外，英國<經濟學人>雜誌也發表過一篇關於玻璃天花板指數的文章，結果顯示韓國在所有評比國家中處於墊底的位置，顯示出韓國職場對女性的不友善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조사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 한국의 직장이 여성에게 비우호적임을 보여주었다)

예시 5) 오히려 여자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사회적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김은영씨가 스물 살이던 1999년에는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고, 김지영 씨가 스물 살이던 2001년에는 여성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면 ‘여자’라는 꼬리표가 슬그머니 튀어나와 시선을 가리고, 뺨은 손을 붙잡고, 발걸음을 돌려놓았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

兩姊妹成長的那個年代，剛好赶上女權意識擡頭，女性地位提升，社會風氣是鼓勵并支持女性的。金恩英二十歲那年，也就是一九九九年，政府制定了禁止性別歧視的相關法案，而在金智英二十歲那年，即二零零一年，國家行政機關則出現了“女性部”，但是每到關鍵時刻，“女性”的標籤就會默默地遮住人們的雙眼，轉移人們的腳步，使人走回頭路，這總是令人感到驚訝，困惑

(자매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여권의식이 대두하고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을 응원하고 지지하던 분위기였다. 김은영씨가 스무 살이던 1999년에는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고, 김지영씨가 스무 살이던 2000년에는 행정기관에 여성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면 ‘여자’라는 꼬리표가 사람들의 두 눈을 가리고 발걸음을 옮겨놓았으며 사람들을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당혹스러웠다)

예시 6)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숨도 막혔는데 그냥 계속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야 했다. 오히려 김지영씨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조마조마했다. 한참 후 선배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주위가 조용해져서야 한증막 같은 이불 속에서 나와 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

(삭제)

예시 1)의 원문은 가부장적 인식에 근거한 성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젠더 규범을 일상적인 젠더 에피소드를 통해 가시화하고 있다. 남학생은 먼티와 운동화가 허용되는 것에 반해, 여학생은 얇은 하복 셔츠 안에 전형적인 흰색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하고 스타킹과 구두만 신을 수 있는, 여학생들에게 더 엄격한 복장규정을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 번역문은 원문의 “복장규정이 좀 짝짝했는데, 유난히 여학생들에게 엄격했다”를 “선생님은 복장 규범에 있어 엄격했고 학생들에게도 엄격히 대했다”라고 변환하여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젠더규범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여학생에게 유독 억압적인 복장 규범에 대한 젠더 에피소드의 핵심어인 여학생이 ‘생략’되어 있다. 번역문은 이후의 내용 전개에서 성차별적인 복장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지만, 첫 문장의 여학생을 ‘생략’함으로써 여성 억압적인 복장규범을

고발하고 기록하려 하는 원작의 취지와 의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하겠다.

예시 2)의 원문은 노동시장에서 여학생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협과 위협에 처하게 되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어린 여자를 희롱할 권리도 샀다고 착각하는 손님들이 부지기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와 “부지기수”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위협과 위협의 심각성이 원문에 비해 강도가 약화되었다.

예시 3)의 원문은 가부장제를 지탱해온 토대인 여성 혐오가 고용난과 양극화가 심화된 2010년대에 접어들어, ‘된장녀’ 등의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된장녀’는 사치와 허영을 부리면서 남자에게 명품을 사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여성 비하의 상을 나타낸다. 원문에서는 “된장녀같은 무슨 ‘녀’라는 여성 비하의 말들이 유행하던 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번역문에서는 “무슨 녀라는 말들이 ‘생략’되고 여성 비하의 말이 유행하던 때가 아닌 “인터넷 용어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다”라는 표현이 첫 문장에 삽입되어 있다. 때문에 독자들은 그 문단의 독해에서 여성 비하의 혐오 표현이 유행하던 시절이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 용어가 유행하던 시절”이라는 완전히 다른 명제에서 독서를 시작하게 된다.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원문의 의미와 취지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시 4)의 원문은 젠더격차지수 가운데 고위직 임원이나 고위공무원 비율을 나타내는 유리천장지수를 근거로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한국이 유리천장지수에서 꼴찌를 기록해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로 꼽혔다”라고 말하며 한국이란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한다. 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한국의 직장”이란 의미의 표현이 대신 삽입되었다. 예시 4)의 원문이 속한 단락과 그것의 위 단락은 유리천장지수 이외에도 한국의 남녀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라고 기록한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고 여직원을 오래갈 동료나 직원으로 여기지 않는, 김지영의 회사 생활을 묘사하여 공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거나 시달리게 될 여성의 노동을 열등한 노동력으로 인식하여 저임금, 비정규직화의 빈곤의 여성화가 나라 전반에 진행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번역문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요약하는 문장인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라는 명제의 의미를 대폭 축소시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한국의 전반적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고발이란 원작의 취지가 번역서에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5)의 원문은 가정 및 교육기관이나 미디어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여성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미세한 차별로 이어지는 젠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원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여권 의식이 대두하고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었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읽힐 법하게 여지를 남겨놓았다. 또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의 삶과 현실을 아직도 제약하고 있다는 의미의 “여자라는 꼬리표가 튀어나와 시선을 가리고, 뺨은 손을 붙잡고, 발걸음을 돌려놓았다”라는 표현이 “여자라는 꼬리표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발걸음을 돌려놓았으며 사람들을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했다”라는 문맥상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변환되어 있다. 따라서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성평등은 이루어가고 있지만 가부장적 의식과 비가시적 차별에 의해 좌절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순적 젠더 현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시 6)의 원문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산 동아리에서 김지영에게 호감이 있는 선배가 연애 경험이 있는 김지영을 ‘씹다버린 껌’에 비유한 것을 듣고, 김지영이 이불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주위가 조용해진 후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가해자 남성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내뱉는 것에 대해 피해 당사자 김지영은 실망, 억울함, 당황스러움, 공포를 느끼지만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되는 것을 참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순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중국어 번역문은 위 예시 6)의 원문 단락을 통제로 삭제하였다. 여성 비하가 일상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김지영의 절망적 감정 상태가 지워진 것이다. 예문 6) 원문의 위 단락이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되어 김지영의 처참한 기분이 전달되고 있지만 예문 6)이 통제로 삭제되어 변하지 않는 현실에 감정의 소모가 무용한 일임을 깨닫고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김지영의

감정 상태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중국어 번역본은 번역 텍스트에서의 삭제라는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장치를 통해 여성 혐오가 팽배한 일상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감정을 지워버림으로써 여성 혐오라는 메타 내러티브를 수정하고 약화시킨 것이다.

4.2 결텍스트에서의 해설 재배치

중국어 번역본의 결텍스트는 해설 재배치를 통해 재구성되었다. 결텍스트의 전체적 구성은 번역서 자체의 독자적인 앞표지 글 및 뒤표지 글과 역자후기, 그리고 한국어 원작의 작품해설을 번역한 해설 텍스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앞표지 글은 주로 한국에서의 원작의 폭발적 인기를 홍보하는 문구로서 “판매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공유, 정유미 주연의 동명 제목 영화로 곧 개봉 예정” 등의 문구를 달고 있다.

페미니즘 내러티브 수용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점은 뒤표지 글 및 역자후기의 주요 내용과 원작의 작품해설을 번역하여 실은 번역서 작품해설 텍스트에서의 삭제 부분이다.

우선 중역본의 뒤표지 글은 다음과 같이 1982년 4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지영이 성장 과정 중에 맞닥뜨린 곤란한 상황에 대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시 7) 김지영. 1982년 4월 1일 출생. 공무원 집안의 33평형 집에서 자랐다. 김지영은 어디서나 매일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아이이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여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집에서 남동생은 항상 제일 좋은 것을 가졌지만 김지영과 그의 언니는 방을 같이 쓰고 한 침대에서 잤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김지영은 짝꿍에게 괴롭힘을 당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었다. “남자 아이는 다 그렇단다. 좋아하는 여학생은 더 괴롭히고 그래.”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치한에 대비해야 했다. 학교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여학생의 몸에 손을 대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그저 참는 것을 선택했다. 대학 졸업 후엔 홍보회사에 들어갔다. 여직원들이 많았지만 고위직 임원은 모두 남성이었다. 퇴근 후엔 접대에 응해 고객의 음란한 농담과 실 새 없는 술 권유를 참아야 했다. 서러운 살

에 결혼을 했고 어른들의 독촉 속에 곧 아이를 가졌다. 사람들이 말하는 ‘순리’라는 기대 속에서 일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김지영은 현재 미궁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분명 나가는 출구를 착실하게 찾아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이 미로의 끝에 닿을 수 없는 것이다.

위 뒤표지 글의 내용을 보면 김지영이란 개인의 인생을 요약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부조리와 부당함이 내용의 주를 이루지만 텍스트 초반에 김지영의 생일과 출생지를 기술하여 김지영의 개인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 역시 김지영의 현재 감정 상태를 기술하여 인식 주체로서의 김지영 개인의 인식과 느낌을 부각하고 있다. 책을 김지영 개인의 인생 스토리로서 소개하는 윗글은 다음과 같이 바로 아래 뒤표지 띠지에 실린, 한국 독자 두 명의 독후 소감과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역자후기의 역자 감상평과도 일맥상통한다. 중역본 뒤표지의 독후 소감 텍스트는 원작의 결텍스트를 번역한 것이 아닌 중역본 자체의 결텍스트이다.

예시 8) “김지영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니 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았다. 지영이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읽으면서 계속 눈물만 났다”

예시 9) “내 인생과 거의 똑같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에 지영이의 일생을 다 읽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결혼 전엔 몰랐고 아이를 낳기 전엔 생각해본 적 없는 우울과 번민, 그리고 예상 가능한 미래까지,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나의 인생보고서이다”

예시 10) 김지영의 인생 이야기에 난 조금도 의아해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책 속에 펼쳐진 그녀의 인생 경험은 지극히 일반적이어서 조금의 새로움도 없었다.

이 책은 한 권의 소설이라기보다 김지영 개인의 인생 묘사 혹은 인생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은 많은 직장여성의 결혼 후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작가가 김지영의 결혼 전과 결혼 후 심리 변화를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이 무척 맘에 든다.³⁾

3) 예시 7), 8), 9), 10)은 모두 중역본 자체의 독자적인 결텍스트로서 필자가 번역한 것

중국어 번역본은 이와 같이 뒤표지 글과 띠지 글 및 역자후기에서 이 소설이 김지영 개인의 경험에 관한 ‘인생스토리’임을 부각하며 원작을 소개한다. “인생이야기”, “인생보고서”, “운명”, “인생경험”, “인생 묘사” 등의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이 소설이 김지영 개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 독자의 독후 소감 역시 김지영의 ‘슬픈 인생스토리’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역자 후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김지영의 결혼 후 심적 변화에 대해 개인적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김지영을 평범하지만 개인적인 인물로 설정해놓은 것이다.

반면, 원작에서의 김지영은 개별성이 아닌 보편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김지영은 80년대 한국에서 가장 흔했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특별히 드라마틱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다. 또한 소설 어디에도 김지영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누구나 김지영 안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을 수 있다. 무엇보다 김지영은 소설에서 제시하는 각종 기사 및 통계를 대변하는, 보편적인 인물이다. 결혼 전에는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한 여성 혐오와 여성억압을 겪었으며, 결혼 후에는 출산 및 육아 문제로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와 인용된 유수의 통계와 보도는 주인공 김지영을 사회의 미세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성장한, 수많은 ‘지영이들’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김현, 손병우 2020: 89-91). 즉, 원작은 차별과 억압의 사회적 젠더 구조에 놓인 주인공 김지영의 ‘보편성’을 통해 여성이 처한 객관적 현실의 문제를 점화하고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역본의 뒤표지 글과 역자후기에서는 상술한 대로 ‘인생’이라는 기표가 반복 배치되면서 김지영의 ‘평범하지만 개인적인 삶’이 강조되고 있다. 원작의 ‘모두의 김지영’이 ‘개인으로서의 김지영’으로 바뀌어서 김지영이 대변하는 사회적 현실 대신 김지영이 겪는 ‘개인적 난관’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부조리한 사회 현실로 인한 김지영 삶의 위기를 개인적 경험의 ‘인생역정’에 귀속시키면 김지영이 겪는 병증을 초래한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자연스럽게 후경화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스토리’와 ‘후경화’가 결텍스트에서 제시되는 방식

이다. 중국어 원문은 제한된 분량을 고려하여 생략하였다.

은 어떠한가.

뒤표지 글만 보더라도 그것의 내용이 김지영이라는 인식 주체의 경험 내용과 의식의 전개로 주로 짜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지영의 의식 세계 내에서 김지영의 경험과 감정이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어 김지영의 인식 주체로서의 중심성이 훼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객관화, 수치화된 정보가 삽입될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구조는 주인공 김지영이 경험 주체이자 인식 주체로서 그녀의 생애에서 성차별을 경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곤란한 지점은 주인공 김지영이 갖는 보편성과 객관화된 정보들로 뒷받침되는 성차별적 현실이 김지영 개인의 고난이자 자아실현 해결 과제로 치환되는 데 있다. 직접적으로 고발된 여성 차별의 사회적 현실이 개인의 경험에 따른 ‘인생스토리’의 구성요소로 귀속되면 성불평등의 사회 구조가 책임 있게 가시화되지 못함으로써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자 헤쳐나가야 할 역경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객관적인 성차별 현실이 축소되거나 비가시화되어 개인적 역경이자 불운으로 놓이게 되면서 구조화된 젠더 차이가 개인화된 차이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작의 작품해설을 번역하여 실은 번역본의 작품해설 텍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작의 작품해설 텍스트에서는 여성 혐오라는 키워드가 4번, 여성연대가 2번 등장하고, 여성 혐오의 개념과 여성연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여성학자 김고연주가 쓴 작품해설은 자신의 일과 꿈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맘충’이라는 단어로 호명하는 여성 혐오적 현실 속에서 평범한 김지영 씨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다고 독자에게 전한다. 그리고 김지영을 우울증에 걸리게 만든 젠더 문제의 해결책은 여성연대에서 그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고 독자를 설득한다. 하지만 중역본의 작품해설에서는 여성 혐오와 여성연대의 키워드가 모두 삭제되었고,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 용기를 내는, 여성연대를 서술한 단락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예시 11) 김지영은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입을 닫아 버린다. 그때마다 하고싶은 말들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김지영은 집, 학교, 거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이 **여성 혐오**라고 명명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여성 혐오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나아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⁴⁾

每當金智英遇見讓人無語或者有失公平的情形時，幾乎都選擇沈默以對，盡管有眞實心聲，却不會坦然說出，我想，她爲什麼不能痛快地說出口，我們一定都心知肚明。金智英應該早已發現，她的家，她就讀的學校，她走的街道，也就是她所居住的這個社會“**對女性不友善**”的事實。在這樣的社會里，女性不僅替自己發聲會招來麻煩，光是身爲女性本身就足以讓自己身陷危機

(김지영은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상황에서 거의 침묵을 선택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 김지영이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들 잘 알 것이다. 김지영은 집, 학교, 거리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여성에게 비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문제를 불러오고 여성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말이다)

예시 12) 김지영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여성 혐오** 사회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김지영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바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김지영을 위한 **여성들의 연대** 행위다. 이 여성들은 김지영을 대신해 말하고 있다.

金智英的症狀雖然很難叢醫學角度說明，但是在“**對女性不友善**”的氛圍下，是可以充分理解的，她只是通過這些女性替自己發聲罷了

(김지영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김지영은 단지 이 여성들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다)

예시 13) **여성 혐오시대에** ‘모성애라는 종교’조차 침탈되는 양상이다. 모성에 대한 신성시도, 맘충이라는 혐오도 여성을 옹아멜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在**對女性不友善**的時代里，仿佛就連“母愛”這個宗教也不復見。不論是對母性的神聖化，還是對“媽虫”的厭惡，都只會成爲女性的枷鎖，又怎麼可能要我們守護完整的“自我”？

(**여성에 비우호적인 시대에** ‘모성애’라는 종교조차 사라진 것 같다. 모성에 대한 신성시도 ‘맘충’이란 혐오도 여성에게 모두 족쇄가 될 뿐이다. 그

4) 예시 11)부터 14)까지의 진한 글씨체는 원문의 여성 혐오와 여성연대라는 키워드가 번역문에서 삭제되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된 것을 가리킨다.

러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예시 14) 이런 세상에서 김지영의 회복을 바라야 할까? 김지영의 회복은 곧 김지영을 위해 대신 말해주는 방식의 **여성연대**의 중단을 의미한다.

我們應該期待金智英能在這樣的社會里康復嗎?金智英的康復就等同于**那些替她發聲的角色**不再出現。

(이런 사회에서 김지영의 회복을 바라야 할까? 김지영의 회복은 김지영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고 같다)

예시 15) 우리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김지영처럼 눈을 감아 버리고 입을 닫아 버린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있고 그 일은 피로와 무력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 감정, 의견 무엇 하나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삭이는 게 차라리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도 소수의 여성들은 목소리를 낸다. 이 여성들이라고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리 없다. 다만 비슷한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과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에 힘입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다.

(삭제)

예시 11), 12), 13), 14), 15)의 원작의 작품해설 글은 여성을 멸시하는 여성 혐오의 사회에서 김지영이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지만 김지영의 엄마나 죽은 친구 등 다른 여성들이 그의 고통에 동참하여 그를 대신해 말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여성연대의 한 방식이라고 전한다. 또한 여성 혐오라는 문화적 인식과 실천이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출현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동시에, 이러한 여성 혐오의 어둠을 견어낼 윤리적 대안이 여성들의 공감과 연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번역하여 실은 중역본의 작품해설 텍스트에서는 여성 혐오와 여성연대라는 키워드와 그것의 주요 개념이 모두 삭제되었다. 원문의 “여성 혐오 시대”는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시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바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김지영을 위한 연대 행위다”라는 문구는 “김지영은 단지 이 여성들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다”라는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오역’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여성 연대를 언급한 단락 역시 통째로 완전히 빠져 있다.

위와 같은 변형을 계기로 중역본의 작품해설에서는 사회현상으로서의 여성 혐오와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여성연대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작의 작품해설에서 핵심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는 여성 혐오와 여성연대를 기술한 부분이 모두 삭제된 탓에 독자들은 이것들의 의미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나아가 이와 관련된 작품해설 텍스트의 어휘, 절, 문장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변환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원작이 날카롭게 고발한 성차별적 현실의 심각성을 약화시켜 번역한 중역본 텍스트의 번역문까지 감안하면, 『82년생 김지영』에 관한 중역본 독자의 판단이 ‘여성 혐오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젠더현실을 고발한 페미니즘 소설’보다는 ‘난관에 부딪힌 김지영의 인생스토리’로 유도되는 것이 상당히 당연해 보인다. 여성 혐오와 여성차별의 사회적 구조를 전면화함으로써 르포르타주와 본격문학의 경계 지점에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는(김수진 2016; 김양선 2017; 김지영 2022; 임혜진 2021; 최예열 2020) 이 소설이 중국이라는 목표문화권에선 ‘현실을 반영한 사회소설’이 아닌 한국 여성 김지영의 ‘개별성’이 강조되는 ‘허구스토리’에 가깝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5. 논의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과 그것의 중국어 번역본을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원작의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번역서에서 다르게 리프레이밍된 사례들을 위와 같이 발견할 수 있다.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에 주로 사용된 장치는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추가, 삭제를 통한 선택적 전유와 참여자 재배치에 속하는, 결텍스트에서의 해설 재배치였다.

우선 페미니즘이란 메타 내러티브가 대폭 약화되었다. 작가 조남주는 이 소설의 집필 동기에 대해 2015년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여성 혐오 관련 발언들에 주목하면서 여성 혐오적 시선에 의해 묘사되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왜곡 없이 기록하고자 했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김현, 손병우 2020: 84). 이러한 작가의 언설도 소설의 실제 내용과 함께 이 소설의 기저를 이루는 페미니즘 내러티브를 명시한다고 하겠다. 여성 혐오

라는 사회적 인식과 여성차별의 사회구조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여성연대를 주장하여 여성억압의 현실에 문학으로 정면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중역본에서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고발 의도보다는 소설 속 김지영의 ‘인생스토리’, 즉 존재론적 내러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소설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 메타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번역 텍스트에서의 위협적인 젠더 에피소드 부분과 성차별적 현실을 논증하는 객관적 자료 제시되는 부분 및 부당한 상황에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김지영의 감정 표현 부분이 생략, 추가, 삭제 등을 통한 선택적 전유로 인해 번역서에서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번역 텍스트에서는 원문의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가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직장”으로 ‘오역’되거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보이지 않는 차별’에 의해 당황하고 좌절하는 여성들의 감정을 묘사하는 단락에 “여권의식이 대두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번역 텍스트에서는 여성 혐오와 여성차별 현실의 심각성이 약화되어 기술되었고 이로 인해 페미니즘의 근간을 이루는 여성차별 고발이란 의도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역본 결텍스트 뒤표지 글 및 역자후기 역시 ‘인생’이란 기표를 곳곳에 배치하고 김지영이란 인식 주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며 김지영의 슬픈 ‘인생스토리’에 공감하는 독자 감상평을 소개하여 원작이 의도한 ‘고발 의도’를 대폭 희석해버렸다. 대신 『82년생 김지영』을 ‘김지영의 인생스토리’로 리프레이밍하여 이 작품이 ‘한국 여성 김지영의 고난에 찬 인생스토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새로운 존재론적 내러티브를 구축하였다. 원작은 김지영이 좌절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병중에 걸린 이유를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찾고 있지만, 중역본은 이러한 사회적 ‘보편성’을 지워버리고 김지영의 ‘개별성’을 부각한 것이다. 중역본 앞표지 소개글에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는 “소녀는 비틀비틀대며 얼마나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一个女孩要經歷多少看不見的坎坷,才能跌跌撞撞地長大成人)”라는 문구도 이를 대변한다.

원작의 작품해설 텍스트를 번역하여 실은 중역본의 작품해설에서도 여성 혐오 및 여성연대라는 키워드와 여성연대를 강조한 단락이 삭제되면서 페미니즘 내러티브의 약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삭제된 여성 혐오 대신 “여성에게 비우

호적인”이란 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여성연대를 서술한 부분은 문맥과 상관없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변환으로 점철되었으며 여성연대를 역설하는 단락은 아예 통째로 삭제되었다. 여성예속 구조의 의식적 기반인 여성 혐오와 성차별 현실의 해결 실마리로 간주되는 여성연대라는 핵심 개념을 지움으로써 페미니즘의 ‘양대 산맥’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페미니즘 내러티브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이란 메타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을 통해 대폭 약화되어 김지영 개인의 존재론적 내러티브로 변화한 것은 독자들의 판단과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우선, 성불평등 현실의 심각성이 대폭 축소되고 김지영의 인생스토리가 부각되기 때문에 김지영의 난관이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김지영이 처한 현실이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보다 개인적 고난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어서 페미니즘 내러티브를 지탱하는 여성 혐오와 여성연대라는 주요 개념이 ‘완벽하게’ 삭제되고 대신 김지영의 슬픈 ‘인생 스토리’에 대한 감정적 공감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82년생 김지영』이 부조리한 성차별 현실을 고발한 사회소설이라기보다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한 소녀의 성장소설로 해석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원작을 관통하는 페미니즘 관점이 ‘김지영의 인생스토리’에 의해 가려지므로 작품해석에 관한 인식의 방점이 팩트에 기반한 현실보다는 허구의 스토리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 인식 및 진단의 시선이 가려졌기 때문에 현실 문제 해결의식도 자연히 고취되기 어렵다.

다음은 2019년 4월 중국에서 『82년생 김지영』이 『82年生的金智英』의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이후 이를 미디어에서 보도한 기사들의 제목이다.

“82년생 김지영, 한국 여성이 처한 곤경의 축소판”
(남방인물주간 2019.10.25.)

“82년생 김지영, 평범한 모든 여성의 성장스토리”
(book. sina.com.cn 2019.9.5.)

“82년생 김지영처럼”
(중국청년보 2019.11.26.)

“82년생 김지영, 여성이 왜 자기자신이 되기 어려운지 말하다”
(sohu.com 2019.12.26.)

“공감을 불러온 82년생 김지영, 중국의 기혼여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sina.cn 2020.1.2.)

“조남주, 알고보니 나도 김지영이었다”

(chinawriter.com.cn 2019.11.20.)

중국의 주요 신문과 사이트들이 주인공 김지영의 인생에 초점을 맞춘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김지영의 ‘곤란’을 초래한 객관적 현실보다는 김지영의 삶에 등장하는 ‘곤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중역본에서 구축된 김지영의 존재론적 내러티브가 미디어 보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9년 11월 26일, 중국의 관영언론인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에 게재된 『82년생 김지영』에 관한 기사 일부이다.

82년생 김지영처럼

김지영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였다. 학교 다닐 때 남학생 뒤에 번호가 매겨지고 취직할 때 남성우대의 채용방침까지 책 속의 모든 줄거리가 너무나 익숙했다. (중략)

인류가 화성까지 가는 세상이지만 여성은 아직도 출산과 양육의 고통을 떠맡고 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지영이들처럼 겪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지영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밀려드는 미안함 때문이었다.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는 날 낳은 후 회계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한 번도 이 자격증을 써볼 수 없었다. 임신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 휴가를 낼 때도 내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 직원에게 미안했다. 고용기관이 왜 남성을 편애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국청년보 2019.11.26.)

중역본에서 구축된 존재론적 내러티브가 위 감상평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글쓴이는 김지영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또한 김지영의 이야기에 눈물이 나는 것은 김지영이 겪은 고통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출산 후 엄마나 직장동료에게 미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식주체로서 개인이 구축하는 이야기와 감정들이 부각되면서 성불평등이란 객관적 현실과 사회구조가 완전히 비가시화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수정되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하향식 국가’인 중

국에서 위의 기사 제목과 감상평이 보여주듯, 일관된 내러티브의 구축이 가능했을까. 중역본에서의 내러티브 변화는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 대한 중국 언론의 관점에 반영되어서 또한 미디어를 통해 이를 접하게 되는 중국 독자들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관된 내러티브의 구축이 중국 사회의 어떠한 정치사회적 맥락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82년생 김지영』은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추가, 삭제와 결텍스트에서의 해설 재배치를 거쳐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대폭 약화된 후 중국 독자들을 만났다. 단순히 실수 혹은 편집상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형과 변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수정된 후 새로 구축된 존재론적 내러티브가 특정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도되고 있으므로 ‘의도적 왜곡’이라고 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번역이 그것을 수용하는 목표문화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업임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80년대 이후 ‘문화적 전환’이란 연구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 시작하면서, 번역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어져 왔다. 이븐 조하르(Even Zohar)의 폴리시스템 이론은 번역을 목표문화권의 문학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여 문학시스템 내의 기타 시스템들과 번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번역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였다. 르페브르(Andre Lefevre)의 리라이팅 이론은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을 주장하며, 문학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나 포에틱스(poetics) 등의 요소에 주목해왔다. 본고의 이론적 배경인 내러티브 이론 역시 목표문화권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관련된 번역 선택에 주목하면서 내러티브 변화에 작용하는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분석해왔다.

알바레즈와 비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번역 작업이 법, 관습, 이데올로기 등 상부구조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며 번역 과정의 언어 조작 양상과 번역이 가져올 수 있는 권력 남용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번역의 조작과 남용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이 조작과 남용으로 무엇이 채기입되고 어떻게 기입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권력 행사와 지식 내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번역은 권력

과 지식의 대립을 보여주는, 탁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권력은 번역을 거친 목표텍스트 내의 특정 담론 요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은 종종 권력 기관의 ‘지침’에 기반한, 극도로 정교한 전략에 따라 수행된다(Alvarez and Vidal 1990: 1-18).

목표문화권 사회구조의 영향력 속에 놓인 번역이라는 작업은 정치적인 의미를 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추가되었던 것, 생략되었던 것, 선택된 표현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선택 뒤에는 이 번역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다시 말하면 광의의 권력 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이 특정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관찰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이를 보여주는 연구 사례를 통해 권력의 전략이 모든 문화적 산물에 깊이 전달되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 번역이 어떤 방식을 통해 조작되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는 데 본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6. 결론

본 연구가 보여주듯 번역은 원작을 ‘변형하거나 축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번역은 그것이 마주하게 되는 정치적 영향을 받는, 하향식 작업일 수 있다. 우연으로 보이는 번역 선택 속에도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권력집단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번역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번역 결과물이 형성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은 특정 권력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관찰시키는 통로로써 번역의 정치적 특성을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했다.

분석 대상이 된 것은 소설 『82년생 김지영』과 그것의 중역본 『82年生金智英』 텍스트였다. 중역본의 번역 텍스트에서는 성불평등 현실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또, 결텍스트 해설이 재배치되어 원작과는 달리 ‘한국 여성 김지영의 개인적 인생 스토리’로 소개되었다. 원작의 페미니즘 내러티브의 핵심 개념인 여성 혐오와 여성연대도 완전히 삭제되었다.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관점에서 분석해본 결과, 번역 텍스트에서의 생략, 추

가, 삭제를 통한 선택적 전유 및 결텍스트 해설 재배치라는 프레임링 장치가 활용되어 원작의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중역본에서 약화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유형의 측면에서 보면 성불평등 현실을 고발하는 페미니즘 메타 내러티브가 번역서에서는 대폭 약화되었다. 내러티브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선택적 전유와 결텍스트 재배치를 통해 성불평등의 심각한 측면이 약화되어 ‘김지영의 인생스토리’라는 존재론적 내러티브 구축에 기여했다. 또한 원문에 없던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다”라는 표현 등이 첨가되면서 페미니즘 관점의 사회적 현실이 원작에 비해 부각되지 못했다. 성불평등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에 대해 여성연대를 제시한 원작은 김지영이 성장하면서 맞닥뜨린 곤란과 고난으로 리프레이밍되었다. 여성 혐오와 여성연대라는 사회적 현실은 완전히 삭제되어 ‘곤란에 처한 김지영의 인생스토리’라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졌다.

페미니즘 의미를 대폭 축소하는, 리프레이밍된 내러티브를 분석해본 결과 ‘페미니즘 암흑시대’에 접어든 중국의 정치적 환경과 맥락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판단은 2019년 중역본이 출간된 이후 발표된, 이 소설과 관련된 다양한 관영 언론 기사 제목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 중국 당국은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의 확산을 꺼리며 여성운동가들을 ‘서구 사상에 오염된 반중국적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당국의 정책에 이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여성운동의 모든 시도에 대해 통제, 탄압, 감시를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희 2021: 215-219). 이제 페미니즘을 전면에 표방한 출판물이 중앙선전부라는 정부 기관의 대폭 강화된 검열에 놓이게 되면서 그대로 출판되기가 어려워졌다.

여성의 주체성과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철저히 통제되는 쪽으로 급속한 방향전환이 일어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는 출판물에 대해 ‘조직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페미니즘 내러티브가 중국이라는 목표문화권에서 적극적으로 ‘수정되고 변형된’ 사례로서, 본 연구의 의의는 곧 번역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확인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를 통해 번역은 특정 내러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며, 원작의 내러티브를 약화시켜 독자들의 시선과 해석을 상이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번역은 원작의 이야기를 특정 프레임 안에 넣어 다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독자

들의 시선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번역은 비가시적 통계의 한 형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 연구는 번역이 지닌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간파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번역이 무엇을 말하는 지도 살펴야 하지만, 무엇을 말하지 않으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통찰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 강경아 옮김 (2018) 『페미니즘』, 서울: 신사책방(Deborah Cameron's *Feminism*).
- 김미지 (2022) 「『82년생 김지영(2016)』과 겹쳐 읽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 페미니즘과 소설의 전략」, 『현대소설연구』 85: 5-36.
- 김수진 (2016) 「여성 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 『교육문화비평』 38: 163-189.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65-100.
- 김정선 옮김 (1997)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문예출판사(Caroline Ramazanoglu's *Feminism and the Contradictions of Oppression*).
- 김양선 (2017) 「페미니즘 리부트와 ‘김지영’ 현상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여성문학연구』 42: 283-287.
- 김지영 (2022) 「여성 없는 민주주의와 ‘K 페미니즘’ 문학의 경계 넘기 - 일본에서의 『82년생 김지영』 번역 수용 현상을 중심으로」, 『일본학』 57: 199-231.
- 김현, 손병우 (2020) 「여성 혐오 담론의 경합과 공존 - 소설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83-111.
- 권김현영 (2019)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서울: 휴머니스트.
- 나일등 옮김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上野千鶴子, 女ぎらい).
- 마승혜 (2020) 「페미니즘 시각에서 문학번역 다시 하기 - 『작은 아씨들』 번역을 중심으로 현상 및 요인 분석」, 『통역과 번역』 22(1): 53-78.

- 박미정 (2022) 「『82년생 김지영』의 페미니즘 문체 번역 - 여성 등장인물 지칭어 어역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6(3): 25-53.
- 박민희 (2021) 『중국딜레마』, 서울: 한겨레출판.
- 박성민 옮김 (2021)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서울: 놀와(梶谷懷, 高口康太, 幸福な監視國家. 中國).
- 박자영 (2020) 「거리의 페미니스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10년대 이후 중국의 페미니즘」, 『문화과학』 104: 92-113.
- 엄혜진 (2021)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0(1): 121-162.
- 오길영 (2018) 「페미니즘 소설의 몇 가지 양상」, 『황해문화』 봄: 335-346.
- 윤승리 옮김 (2020)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서울: 산지니(Leta Hong Fincher's *Betraying Big Brother*).
- 윤일환 옮김 (2008) 『번역, 권력, 전복』, 서울: 동인(Román Álvarez and M. Carmen-África Vidal'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 이니영 (2016) 「여성 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 147-186.
- 이범 (2022) 「82년생 김지영 중국어 번역본의 페미니즘 번역에 대한 고찰 - 주변텍스트 및 인물형상화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4(3): 89-124.
- 이상빈 (2016) 「자막번역에 의한 여성 재현의 변이: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2): 60-80.
- 이상빈 (2021)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젠더/여성/페미니즘 관련 번역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변화: 표지 이미지와 책제목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3(1): 125-159.
- 이상빈, 이선우 (2018) 「인물형상화와 페미니즘 번역: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SF 소설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1): 147-176.
- 이선욱 (2018) 「페미니즘 소설의 감정지도 그리기」, 『창작과 비평』 46(4): 324-343.
- 이혜승 (2019) 「내러티브 프레임링 관점에서 분석한 *The Great Escape: Health*,

-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번역학연구』 20(1): 201-237.
- 정은경 (2018) 「2010년대 여성담론과 그 적들 - ‘돌봄’의 횡단과 아줌마 페미니즘을 위하여」, 『대중서사연구』 24(2): 97-125.
- 조남주 (2017)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 조영남 (2022) 『중국의 통치체제 2 - 공산당 통제 기제』, 서울: 21세기북스.
- 조정원 (2022) 「중국 출판정책의 특성과 변화 - 13차 5개년 계획,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8(4): 107-146.
- 최예열 (2020) 「『82년생 김지영』의 가부장제 비판과 저항의 의미」, 『인문과 예술』 9: 167-184.
- 한담 (2020)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거울로 비춰 본 중국 ‘바링허우’ 여성의 삶과 문화적 재현」, 『중국어문학논집』 122: 297-323.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20.
- Basu, Amrita (2017) *Women’s Movements in the Global Era*, New York: Routledge.
- Boukhaffa, Abderrahman (2018) ‘Narrative Reframing in Translating Modern Orientalism - A Study of the Arabic Translation of Lewis’s *The Crisis of Islam: Holy War and Unholy Terror*’, *The Translator* 24(2): 166-182.
- Tyulenev, Sergey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 Wang, Qi (2018) ‘From Non-governmental Organizing to Outer-system - Feminism and Feminist Resistance in Post-2000 China’, *NORA-Nordic Journal of Feminist and Gender Research* 26(4): 260-277.
- Xiao, Di and Bingham Zheng (2015) ‘Reconstructing a Narrative, Reinterpreting a History - A Case Study of Translating *Big Breasts and Wide Hips*’,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2(3): 155-173.
- 尹嘉玄 [Yoon Ga Hyun] 譯 (2019) 『82年生的金智英』 [Baernians hengdeJinzhiying (Kim Jiyong, born 1982)], 『貴州人民出版社』 [Guizhourenminchubanshe].

<인터넷 자료>

임지영 (2019.12.2.) 「세계가 공감한 김지영」, 시사인 637호, 2023년 6월 23일
검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0>

李察 [Li Cha] (2019. 11.26.) 「就像82年生的金智英」 [82년생 김지영처럼] 中國
青年報 [중국청년보], 2023년 6월 25일 검색.

http://zqb.cyol.com/html/2019-11/26/nw.D110000zgqnb_20191126_2-08.htm

張嘉 [Zhang Jia] (2019.11.20.) 「趙南柱，原來我是金智英」 [조남주, 알고보니 나
도 김지영이었다], 2023년 6월 26일 검색.

<http://www.chinawriter.com.cn/n1/2019/11/20/c404090-31463939.html>

張宇欣 [Zhang Yuxin] (2019.10.25.) 「82年生的金智英，是韓國女性困境的縮影」
[82년생 김지영, 한국 여성이 처한 곤경의 축소판] 南方人物周刊 [남방인
물주간], 2023년 6월 26일 검색.

<https://www.nfpeople.com/article/9655>

82年生的金智英，每一位平凡女性的成長故事 [82년생 김지영, 평범한 모든 여
성의 성장 스토리] (2019.9.5.), 2023년 6월 26일 검색.

<http://book.sina.com.cn/news/xpzs/2019-09-05/doc-iiycezzrq3702411.shtml>

82年生的金智英引共鳴，中國已婚育女性都在經歷什麼? [공감을 불러온 82년생
김지영, 중국의 기혼여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2020.1.2.),
2023년 6월 26일 검색.

https://k.sina.cn/article_215640838_1_80882e3d02000lwov.html

從82年生的金智英說起，女性爲什麼難以成爲自己 [82년생 김지영, 여성이 왜 자
기 자신이 되기 어려운지 말하다] (2019.12.26.), 2023년 6월 26일 검색.

https://www.sohu.com/a/362962252_260616

<온라인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Abstract]

**Narrative Reframing in Translating Feminist Novel:
Analysis of Chinese Translation of *Kim Jiyoung, Born 1982***

Ji-Young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eminist novel features its tendency to critique gender inequality and misogyny. It generally promotes a very positive perspective of any type of female bonding, which supports the feminist goal of establishing equal civil and social rights for women. In this regard, Cho Nam-joo's novel *Kim Jiyoung, Born 1982* is widely perceived as a feminist novel. However, its Chinese translation was not introduced as a feminist novel. Considering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in China has been unfavorable for feminism during the late 2010s, this paper focuses on the book's different reception in China. From the late 2010s until now, feminism confronts grave challenges, as the authoritarian state has been hostile to feminism and openly conservative in its gender policy for reviving patriarchal order. *Kim Jiyoung, Born 1982* and its Chinese translation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narrative reframing. The analysis draws on the translated text material published in China. Such textual analysis is then combined with references to paratexts including the translator's preface, literary reviews, and media reports. Narrative reframing is one of the good means to understand the social world around translation. Narrative theory and the notion of framing recognize the power of social structures, and explain translational choices in relation to wider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Baker 2007: 154-155).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translated text of Chinese translation of *Kim Jiyoung, Born 1982* and the paratexts illustrates that the feminist narrative of the original text was undermined in the translation. Through the narrative reframing, feminist narrative was changed into Kim Jiyoung's ontological narrative,

emphasizing her life story. The particular aspects in the feminist narrative were suppressed and deleted. Issues discussed include gender inequality, misogyny, and female bonding. This kind of narrative reframing is related to the views and interests of power groups in China. In the context of a severe backlash against feminism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moted a public discourse of femininity by rearranging gender practices, which lead to conflict with feminism. This case study demonstrates that translation is a kind of invisible act of control deeply grounded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target language.

Keywords: feminist novel, feminism, narrative, narrative reframing, *Kim Jiyoung, Born 1982*

주제어: 페미니즘 소설, 페미니즘, 내러티브,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82년생 김지영

이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특임강의교수

zhiying2003@hanmail.net

관심 분야: 번역사회학,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수용

논문 투고: 2023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10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